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관세청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6. 11. 26.(목) 15:00

관세청, 무역기반 재정·금융 편취 범죄(TBFC) 근절 협업을 위해 6개 기관과 양해각서(MOU) 체결

- 정부 보조금 및 정책금융, 공공조달, 자본시장 감독, 무역금융을 운영하는 중기부·조달청·금융정보분석원(FIU)·금감원·한전·무보와 협력 구체화
- 9월 출범한 '무역기반 재정·금융 범죄(TBFC) 특별수사단' 참여 기관 간 정보교류 절차 명문화 및 통합 합동점검·단속체계 확립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11월 26일(목) 서울세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6개 기관과 '무역기반 재정·금융 범죄(TBFC)* 근절 협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 Trade Based Financial Crime : **수출입** 실적·원산지 조작 등 무역을 악용한 **재정편취·금융시장 교란 범죄** 총칭

이번 체결식은 지난 9월 자본시장 교란, 공공조달 부정납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정책·무역금융 편취 등 진화하는 무역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범한 '무역기반 재정·금융 범죄(TBFC) 특별수사단'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정보공유를 통한 「무역기반 재정·금융 범죄(TBFC) 통합 합동점검·단속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무역기반 재정·금융 범죄(TBFC, Trade-Based Financial Crime) 유형]

❶ (**자본시장 교란**) 수출입실적 조작 또는 허위·가장무역을 통해 매출을 부풀려 공시하고 주가 부양, 부정 상장 또는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

❷ (**공공조달 부정납품**)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한 뒤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수입(계약)금액을 고가로 조작한 후 공공기관 등에 부정 납품하는 행위

❸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수출입거래 조작을 통해 무역실적 기반으로 지급되는 국가·지자체 보조금 등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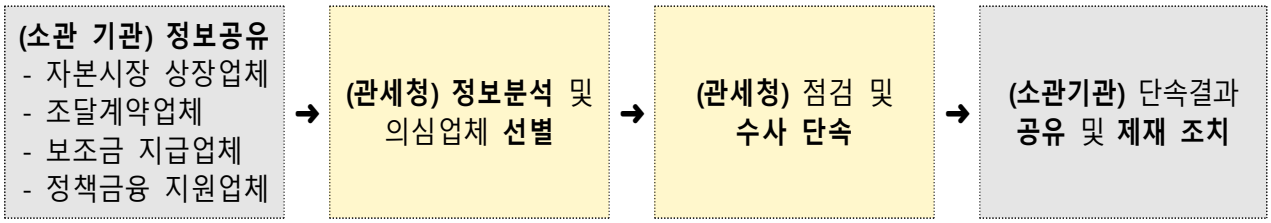
❹ (**정책·무역금융 편취**) 대출한도 상향을 위한 수출입 실적 조작, 허위 무역거래를 통한 불법 대출 및 정책금융 부당 편취 행위

특히 특수단 출범 당시 참여한 기존의 금융·조달·중소기업 지원 기관 외에도 자본시장·회계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대규모 전력기자재를 조달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까지 협력 외연을 넓혀, 무역거래를 악용한 재정·금융 편취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 9월 무역기반 재정·금융 범죄(TBFC) 특수단 발대식 참석자 : 관세청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조달청 차장, 금융정보분석원장, 한국무역보험공사 보상채권관리본부장 등

이번 양해각서(MOU)를 통해 관세청과 6개 관계 기관은 수출입 실적이 기반이 되는 기업가치 평가, 조달·납품계약, 정부지원 사업자 선정 관련 자료를 상호 공유하고, 점검·단속 결과 환류 및 후속조치까지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통합 합동점검·단속체계의 표준 업무절차를 확립하게 되었다.

['무역기반 재정·금융 범죄(TBFC) 특수단'의 통합 합동점검·단속체계 메커니즘]



양해각서(MOU) 체결에 앞서 체결 기관들은 비공개 실무회의를 통해 지난 9월 특수단 출범 이후의 협업체계를 점검하였으며, 기관 간 공유된 기초 정보가 실제 점검·단속 대상을 정밀하게 특정하는데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후에는 이종욱 관세청장이 '체결기관 간담회'를 주재하여 관계 기관들과 향후 합동단속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수출입 거래 조작을 수단으로 삼는 지능형 재정·금융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무역 실물과 외환 흐름을 동시에 감독하는 관세청의 조사 역량과 관계 기관의 현장 감독 정보가 전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의심업체 선별부터 외환검사·수사 및 단속 결과 환류까지 관계 기관과 함께하는 통합 합동점검·단속체계를 상시 가동하여 국가재정의 누수를 원천 방지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체결 기관의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수출입 조작을 통해 재정·금융을 편취하는 불법·편법행위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무역기반 재정·금융 범죄(TBFC)를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 관세청과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관세청 조사총괄과	책임자	과 장	최문기 (042-481-7910)
		담당자	사무관	박수영 (042-481-7818)
담당 부서	관세청 외환조사과	책임자	과 장	허범석 (042-481-7930)
		담당자	사무관	고용재 (042-481-323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1 양해각서 체결식 참석자별 주요 말씀

참석자명	말씀 내용
심재윤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 무역거래 조작을 통한 정부 보조금 및 정책자금 부정수급은 건실한 중소기업의 지원 기회를 박탈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관세청과 함께 부정수급 적발·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
김지욱 조달청 디지털 공정조달국장	•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공공조달 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세청과 상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적발 시 입찰 제한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
강성기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실장	• 수출입 실적을 허위로 부풀려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정보공유 및 자금추적 공조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
이승우 금융감독원 공시·조사부문 부원장보	• 관세청의 실제 통관·외환 데이터와 금융감독원의 기업 공시·회계 심사 정보가 결합되면 분식회계나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법행위를 조기에 포착하고 적발하는 데 큰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
조준호 한국무역보험공사 보상채권관리본부장	• 허위 또는 가장 수출입 거래를 통한 무역금융 편취를 선제적으로 걸러냄으로써, 정책금융의 누수를 막고 실제 지원이 절실한 정상 수출기업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
김성효 한국전력공사 상생조달처장	•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전력기자재는 안정적 전력공급과 국민 안전에 필수적인 만큼, 전력기자재 조달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역 악용 부정납품을 원천 차단하여 공정한 납품 질서를 확립하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